

정례브리핑

2022.9.30.(금) 10:30, 이효정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 전체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은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학계 등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 협력의 여러 분야 주체들이 서로 상시적으로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협의체로서 지난해에 출범하였습니다.

올해 플랫폼 참여자들은 북한의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대응 현황, 결핵 등 주요 협력 분야별 대북지원 전략, 플랫폼의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의 주제별로 웨비나 중심의 활발한 협의와 소통을 이어 왔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올해 플랫폼 참여자들이 진행해 왔던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협력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전체회의가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대북 보건의료 협력을 준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부 장관도 회의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제 제공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젯밤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정부 입장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위협과 도발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선택해야 하며,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함으로써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질문> 어제 NSC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북한이 최근 닷새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행위에 대응하고, 추가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대북 제재 강화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고 지금 어제, 오늘 해서 모 매체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2년 전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북한 현장학습 교재를 한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마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거든요.

아무튼 이 건 관련해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보도에서는 북한 현장학습 같은 이런 교재를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교육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알기로는 통일부가 지금 각급 학교에 대해서 통일 관련 교육을 하는 것도 관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마찬가지로 이런 강원도 교육청에서 했던 북한 현장학습 교재, 자료 이런 데도 혹시 통일부나 통일부 산하기관에서 지도를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시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국립통일교육원에서는 학교 통일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라든가 교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 사항과 관련해서는 제가 현재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